

纪念安重根哈尔滨举义100周年

# 안중근연구

# 安重根研究

리정걸 편저

북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纪念安重根哈尔滨举义100周年

# 안중근연구

# 安重根研究



리정걸 편저



중앙일보  
조선인쇄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安重根研究: 朝鲜文 / 李正杰编著.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10  
ISBN 978-7-5389-1492-4

I. 安… II. 李… III. 安重根 (1876~1910) —人物研究—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K833. 127=43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182176 号

|       |                               |
|-------|-------------------------------|
| 书     | 名/ 安重根研究                      |
| 编     | 著/ 李正杰                        |
| 出版发行/ |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
| 发行电话/ | 0451-57364224                 |
| 电子信箱/ | hcxmz@126.com                 |
| 责任编辑/ | 韩永男                           |
| 责任校对/ | 宋英爱                           |
| 封面设计/ | 咸成镐                           |
| 印     |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
| 开     | 本/ 640mm×960mm 1/16           |
| 印     | 张/ 24. 25                     |
| 字     | 数/ 330 千字                     |
| 版     | 次/ 2009 年 10 月第 1 版           |
| 印     | 次/ 2009 年 10 月第 1 次印刷         |
| 书     | 号/ ISBN 978-7-5389-1492-4(民文) |
| 定     | 价/ 36. 00 元                   |

## 머 리 말

20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의사가 할빈에서 의거를 거행한 100주년 기념일이다. 이 백년간 자본주의국가는 몇차례의 큰 위기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나서 현대화대발전시기에 진입했다. 1910년 2월 17일, 안중근의사는 고등법원 히라이시(平石)원장앞에서 이렇게 예언했다. 현재의 일본은 이미 세계열강과 어깨를 겨루는 일등국이지만 성질이 급한탓에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하고말것이다. 35년후,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제국주의는 무조건투항을 선포하고 멸망하였다. 세계 각국의 유지인사들은 력사의 경험교훈을 총화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번영과 민주주의발전을 통한 사회진보의 길을 모색하였고 국가간 호혜합작으로 경제발전과 지역안전을 도모하였다. 동아시아 3개 국의 개혁개방 및 대발전과 함께 안중근연구와 기념활동도 새로운 고조를 맞이하였다.

안중근연구와 기념활동의 첫 고조는 안중근의사가 할빈에서 의거를 거행한 직후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우중(金宇鍾)선생께서 훌륭한 평론과 귀납을 해주셨다.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격살한것은 전 세계를 진동시킨 중대한 력사적사건이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모두 많은 평론과 보도를 했으나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해준것은 미국의 한문보, 화문보, 로씨야 울라지보스토크의 한문보와 중국의 신문들이다. 김우중선생은 력사적원인으로 인해 안중근에 대한 연구와 기념활동은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안중근연구와 기념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당시 중국의 상해, 천진, 북경, 광주, 중경, 심양, 항항 등지의 신문에서 150여편의 론설과 평론, 보도를 실었는데 그 중심

## 2 안중근연구

지인 상해에서는 《시보(时报)》, 《신보(申报)》, 《민우일보(民吁日报)》, 《화상일보(华商日报)》 등에 50여편이 발표되었는데 《민우일보(民吁日报)》만 해도 무게있는 론설 5편과 보도 19편이 발표되었다. 상해에 망명해있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안중근추모활동을 진행할뿐더러 많은 문장과 시구를 발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독립운동가이며 사학가인 박은식선생이 쓴 《안중근》이다. 대동서국은 이 책을 세계위인시리즈에 편입해 출판하였다. 김우중선생은 “현재 있는 자료들과 비교해보면 박은식선생이 쓴 《안중근》은 안중근의 생평, 사상과 활동에 대해 전면적이고 진실하게 서술하였으며 평가 역시 극히 정당하였다. 박은식은 안중근을 한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이며 동양평화를 위해 투쟁한 평화전사로 정의한 첫 사람이다.”고 평가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의 결속과 일본제국주의 멸망에 따라 1946년부터 안중근의 전우 우덕순의 《회억록》, 안중근의 벗인 《대동공보(大东共报)》 주필 리강이 쓴 《내가 알고있는 안중근》, 리전(李全)의 《안중근 혈투기》와 황의돈(黄义敦)이 쓴 《안의사(중근)전》 등이 연속 출판되었다. 1947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안의사추모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었고 남산에 안중근기념관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안중근연구와 기념활동의 두번째 고조는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할수 있다. 그후 1968년부터 1979년 사이, 최서면(崔书勉)선생과 김정명(金正明)교수가 선후로 일본에서 《안응칠력사(安应七历史)》와 《동양평화론》을 발견했고 1991년에는 박은식선생의 《안중근》이 할빈에서 발견됨과 동시에 안중근 심문, 공판기록이 출판되면서 동아시아 3국에서 안중근연구와 기념활동의 새 고조를 일으켰다. 중, 한, 일 3국에서는 선후하여 안중근연구 국제세미나가 수차 열렸다.

한국에서는 《안중근전집》, 각종 《안중근자료집》, 최서면의 《대한국인안중근》, 세계일보사에서 편찬한 《대한국인안중근》, 안중근기념관에서 편찬한 화첩 《대한국인안중근》 및 논문집 여러권이 출판되었

고 최서면(崔書勉), 윤병석(尹炳奭), 김유혁(金裕赫), 조순(趙淳), 김영호(金永鎬), 윤경로(尹慶老), 서덕근(徐德根) 등 안중근 연구학자들이 나타났다. 조선에서는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격살하다”란 영화를 촬영하고 해주력사박물관내에 안중근사적전시실을 설치하였으며 남포공원에 안중근기념비를 세웠다. 일본에서는 가노다쿠미(鹿野琢見)의 《안중근무죄론》이 가장 대표적인데 저자는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저격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방법 또한 정당하므로 안중근의 행위는 무죄이며 본 사건의 소송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카노 다유우(中野太雄)는 《안중근은 왜 이등박문을 격살했나》란 책에서 “피살자 유죄론”을, 사이토 미치노라(齊藤充功)는 《이등박문을 격살한 남자—안중근 원상(原象)》을 저술했고 시라이 히사야(白井久也), 사사기 류조(佐木隆三), 이치가와 마사아키(市川正明), 후지타 오시로오(藤田义郎) 등 학자도 많은 저작과 논문을 내놓았다.

중국의 안중근연구와 기념활동의 중심지는 할빈이다. 김우종과 최서면이 주필을 맡은 중문판 《안중근》(론문, 전기, 자료), 김우종, 리동원(李東源)이 편집한 한글판 《안중근의사》 등은 중국의 안중근연구활동을 유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리고 전 할빈시문화국 국장 왕홍빈(王洪彬)이 창작한 오페라 “안중근”이 공연되었고 서명훈(徐明勛)의 《안중근 할빈에서의 열하루》, 김우종 주필로 된 화첩 《안중근과 할빈》, 남영(南榮)의 연화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격살하다》 등이 출판되었다. 할빈시정부의 지지하에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에 안중근기념관이 설립되었고 할빈공업대학에는 안중근장학회(한국 서덕근교수, 회장 담임)가 설립되었다. 근 20년래 《흑룡강신문》(조문판), 《송화강》(조문판잡지) 및 기타 신문잡지에는 안중근에 관한 논문, 기념문장, 시가 등 150여편이 발표되었다. 할빈시조선족로년문화협회를 위수로 한 각계 인사들이 조직한 안중근추모회, 기념회, 보고회, 토론회 등도 50여차나 된다. 그외 북경, 상해, 료녕, 길림 등지에도 류병

#### 4 안중근연구

호(刘炳虎), 양소전(杨昭全), 리범(李帆), 강천명(姜天明), 석원화(石源华), 서용(徐勇) 등 안중근연구학자가 나타났다.

로씨야적 한인 박종효(朴钟孝), 박폴리스(朴包利斯), 박벨라(朴别尔拉) 등도 로어 문헌자료에 근거해 가치있는 논문 여러편을 발표하면서 안중근연구의 2차고조에 동참하였다.

제2차 안중근연구고조의 주요성과를 총화해보면 안중근의사의 문장들이 거의 다 수집되었고 안중근의거와 관련된 역사자료가 기본상 다 정리되었으며 안중근전, 안중근화책도 여러권 새로 나왔고 안중근연구서적, 논문도 많이 나왔다. 특히 안중근사상의 한 주제, 한 측면, 안중근 생평의 한 단계에 대한 집중적연구가 큰 학술성과를 거두었는바 많은 독특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특별히 지적해야 할것은 제2차 안중근연구고조가 형성되는 동안 중, 한, 일 3국 학자들이 서로 학습하고 공동토론하는 새 기풍이 형성된 점이다. 이는 새로운 역사조건 하에서 동아시아 3국의 학자들이 함께 일체의 침략죄행을 청산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공동 수호하는 보귀한 사조로서 안중근연구가 부단히 발전할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안중근의거백주년기념활동 이후, 각국 학자들의 공동노력에 힘입어 중, 한, 일, 로 등 나라에서 안중근의거 관련자료를 발굴하는 일, 안중근의거가 동아시아 3개국에 미친 작용에 관한 연구, 안중근사상에 대한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큰 성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필자가 안중근사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것은 1996년 김우중선생한테서 그가 주필을 맡은 《안중근》을 받아본후다. 그후 김우중, 서명훈 두분은 나한테 중, 한, 일, 로 학자들의 논문을 많이 제공해주어 내가 안중근사상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하여 나는 2000년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에서 “안중근순국90주년 그림전시회”를 개최할 때 주필을 맡을수 있었고 또 김우중선생의 화첩 《안중근과 할빈》의 편집에도 참여할수 있었다. 근 10년간 나는 할빈시와 외현에 가서

“민족영웅 안중근 사적”이란 제목으로 25차례의 보고회를 진행했다.

2009년 10월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기념활동이 할빈에서 열리게 된다. 이 역사적인 행사를 맞이하면서 나는 할빈사람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압력감도 적지 않았다. 백년전 할빈의 인구는 5만, 그중 조선인은 268명이였다. 현재의 할빈은 전국 10대 도시에 꼽히며 시구역 인구 근 500만명, 그중 조선족이 근 6만명(대학교수만 근 300명)에 이른다. 역사를 배운 사람으로서 백주년 행사에 논문 한편이라도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하여 나는 2005년부터 본 논문집을 준비하게 되었다. 논문집은 안중근사상 및 안중근의거의 역사작용 연구, 서평, 고증과 자료 등 네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일부 문장은 내가 쓰는것보다 한족 학자가 쓰면 그 효과가 더 좋을것 같아서 대학동창인 할빈공업대학 오시기(吳時起)교수에게 원고조직을 부탁했다. 그리고 집필과정에 김우중, 서명훈 두분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윤응순, 송선옥, 김룡운 등 여러분들도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 그리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의 여러 편집들과 《송화강》잡지 편집 리춘실이 본 논문집의 출판에 큰 도움을 주었다. 논문집이 나올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올린다.

리정걸

2009년 3월

설명: 본 논문집에 인용한 안중근의 말씀중, 출처를 표명하지 않은것은 모두 김우중, 최서면이 주필을 맡은 《안중근》(중문판)중의 전기와 자료에서 발취하였다.



## 前 言

2009年10月26日是安重根义士哈尔滨举义一百周年纪念日。在这一百年中，资本主义国家经历了几次大危机和两次世界大战，后转入了现代化大发展时期。1910年2月17日，安重根义士曾当着高等法院平石院长面预言说：现在的日本已是一等国，与世界列强并肩站立着，但是日本因性急而会很快灭亡的。时过35年，二战中战败的日本帝国主义无条件投降了。世界各国的志士们都努力总结历史经验教训，思索着发展科技以促进经济大发展，发展民主以推动社会进步，各国间通过合作互利以促进经济发展和区域安全。随着东亚三国改革开放和大发展，逐步出现了安重根研究和纪念活动的新高潮。

安重根义士哈尔滨举义后不久，出现了安重根研究和纪念活动的第一个高潮。对此，金字钟先生作了很好的归纳和评论。安重根击毙伊藤博文是震动全世界的重大历史事件。对此，世界各国都有报导和评论，但是，对安重根举义给予正确、公正评价的是美洲的韩文报、华文报，俄领海参崴的韩文报和中国的报刊。金字钟先生说，由于历史原因，对安重根的研究和纪念活动是从中国开始的，中国又成了研究和纪念安重根活动的中心地区。当时中国的上海、天津、北京、广州、重庆、沈阳、香港等地的报刊发表了150多篇社论、评论和报道，其中中心地在上海：①《上海时报》、《上海申报》、《民吁日报》、《华商日报》等共发表50多篇，仅《民吁日报》一家就发表了有分量的5篇社论和19篇报道。②在上海亡命的韩国爱国独立运动家们不仅举行了悼念安重根的活动，还发表了不少文章和诗词，其中突出代表是韩国独立运动家、史学家朴殷植著《安重根》一书。大同书局把该书列入世界伟人丛书给予出版。金字钟先生评论说：

“朴殷植先生著《安重根》，就现有资料对照看，对安重根的生平、思想和活动的叙述全面真实，评价极为得当。他第一次把安重根评价为，不只是为韩国独立而献身的爱国义士，而是为东洋和平而战的和平战士。”

随着第二次世界大战的结束，日本帝国主义的灭亡，解放了的韩民族，从1946年开始陆续出版了安重根战友禹德淳的《回忆录》，安重根亲友《大东共报》主笔李刚著《我所认识的安重根》，以及李全的《安重根血斗记》和黄义敦的《安义士（重根）传》。1947年，在韩国汉城第一次隆重举行了安义士追悼大会，并在南山修建了大型安重根纪念馆。依此可以说，安重根研究和纪念活动的第二个高潮是从韩国开始的。以后，随着1968年至1979年间崔书勉先生和金正明教授先后在日本发现了《安应七历史》、《东洋和平论》，1991年朴殷植著《安重根》在哈尔滨的发现和安重根审问、公判记录的出版，推动了东亚三国安重根研究和纪念活动的新高潮，先后在中、韩、日分别举行过国际安重根研讨会多次。

在韩国，先后出版了《安重根传全集》、多种《安重根资料集》；出版了崔书勉著《大韩国人安重根》、世界日报社编著《大韩国人安重根》、安重根纪念馆编《大韩国人安重根》画册和几本论文集。与此同时涌现了一批安重根研究学者：如崔书勉、尹炳奭、金裕赫、赵淳、金永镐、尹庆老、徐德根等人。在朝鲜，制作了《安重根击毙伊藤博文》影片，在海州历史博物馆内设立了安重根事迹展览室，在南浦公园内立了安重根纪念碑。在日本，鹿野琢见的《安重根无罪论》最为突出，他明确提出安重根击毙伊藤博文的动机、目的正当，手段、方法正当，安重根行为是无罪的，本案的诉讼应该废弃。还有中野太雄著《安重根为何刺杀伊藤博文》中提出“被刺者有罪”论、齐藤充功著《击毙伊藤博文的男人——安重根原象》，以及白井久也、佐木隆三、市川正明、藤田义郎等学者的著作和论文。

在中国，安重根研究和纪念活动的中心在哈尔滨。金字钟、崔书勉主编《安重根》（论文、传记、资料）中文版，及金字钟、李东源编著《安

重根义士》朝文版的出版，有力地推动了中国的安重根研究活动。已出版的还有王洪彬(原哈尔滨市文化局局长)的《安重根》歌剧本、徐明勋著《安重根在哈尔滨十一天》、金字钟主编《安重根和哈尔滨》大型画册、南荣的《安重根击毙伊藤博文》连环画。在哈尔滨市政府支持下，朝鲜民族艺术馆内开设了大型《安重根义士纪念展》；还有哈尔滨工业大学的“安重根奖学金会”(由韩国徐德根教授任会长)。近20年来《黑龙江新闻》(朝文版)、《松花江》(朝文杂志)和其他报刊上发表的有关安重根的论文、纪念文章、诗歌等有150多篇。由哈尔滨市朝鲜族老年协会为主的各界人士举办了安重根追悼会、纪念会、报告会、讨论会等50多次。另外，北京、上海、辽宁、吉林等地出现了安重根研究学者，如：刘炳虎、杨昭全、李帆、姜天明、石源华、徐勇等。

俄籍韩人朴钟孝、朴别尔拉、朴包利斯等人依据俄文档案资料写出了有价值的数篇论文，参与了安重根研究的第二次高潮。

总之，第二次安重根研究高潮中已取得的主要成果是：安重根义士的文稿基本收齐，安重根举义有关历史资料基本整理出版，新编安重根传、安重根画册多本，安重根研究专著、论文也相当多，其中，就安重根思想中的某一专题、某一侧面或安重根生平的某一历史段的研究上取得了较高的学术成果，提出了许多独到见解。特别要指出的是，在第二次安重根研究高潮形成过程中，出现了中、韩、日学者们相互学习、共同讨论的新风气，这是在新的历史条件下，东亚三国学者们共同清算日本帝国主义侵略罪行，共谋维护和发展东洋和平的可贵思潮，是安重根研究不断深入发展的重要因素。

我相信，安重根哈尔滨举义100周年纪念活动之后，在各国学者们的共同努力下，将在中、韩、日、俄等国内安重根举义有关资料的发掘方面、安重根举义在东亚三国所起历史震动作用研究方面、安重根思想研究方面会有新突破、新成绩的。笔者学习和研究安重根思想较晚，于1996年金字钟先生给我一本由他主编的《安重根》一书后开始的，以后金字

钟、徐明勋二位先生又给我提供了中、韩、日、俄学者的很多论文，使我对安重根思想的认识有了较大提高。2000年由哈尔滨市朝鲜民族艺术馆主办《纪念安重根义士殉国90周年图片展》时我担任了主编，又协助金宇钟先生参与编写了《安重根和哈尔滨》大型画册。近十多年，我在哈市和外市县作的《民族英雄安重根事迹》报告达25次。

2009年10月，安重根义士哈尔滨举义一百周年纪念活动将在哈尔滨召开，这是一次有历史意义的会议。我作为哈尔滨人既高兴又有点压力。一百年前的哈尔滨只有五万人口，其中朝鲜族是268人；现在的哈尔滨是全国十大城市之一，市区人口近五百万，其中朝鲜族近六万（光是大学教授近三百人）。为迎接安重根义士哈尔滨举义一百周年纪念活动，学过历史的我有责任为纪念会提交一份自己的论文，来表达对安重根义士的敬仰，于是从2005年开始着手了本论文集的写作工作。本论文集分四部分：安重根思想及安重根举义的历史作用研究、书评、考证和资料。有几个题目，我觉得由我本人写不如由汉族学者写更好，于是我特请大学同班同学、哈尔滨工业大学吴时起教授去组稿的。本论文集写作过程中得到了金宇钟、徐明勋二位先生的大力支持，又受到尹应淳、宋善玉、金龙云先生们的鼓励，还有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林永万社长为本书出版给予了大力支持，我在此一并表示衷心的感谢。

李正杰

2009年3月

说明：

本书中引用的安重根语，没注明出处的，全都来自金宇钟、崔书勉主编的《安重根》（中文版）一书中的传记、资料。

## 목    록

머리말 / 1

前言/7

안중근의사 애국사상의 선명한 특징 및 위인품격/1

안중근의사 러순감옥에서의 영웅한 투쟁/15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사상을 논함/33

안중근의 신앙생활과 의거와의 관계/55

안중근의사의 인생철학/71

안중근의거가 동아시아에 미친 역사적진동작용을 논함/83

이등박문은 중한 량국 공동의 적이다/123

안중근의거 및 그 정신이 중국에 미친 영향/129

안중근과 민수파의 비교연구/137

박은식 저 《안중근》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143

정원 저 《안중근》의 결론을 평함/159

무로다가 그린 안중근 이등저격현장 스케치맵에 대하여/183

일본인이 그린 안중근 이등저격장면 포스터/195

안중근의사 순국 5분전의 사진에 관하여/199

안중근의 모친 조씨의 "전갈"에 관하여/203

자료

사카이 요시아키의 신문보고에서 발췌한 안중근어록/207

안중근의사는 명사수/211

## 目 录

|                             |
|-----------------------------|
| 安重根义士爱国思想的鲜明特点及其伟人格/215     |
| 安重根义士在旅顺日本监狱中的英勇斗争/225      |
| 论安重根义士的东洋和平论思想/239          |
| 安重根的信仰生活与其爱国举义的关系/255       |
| 安重根义士的人生哲学/267              |
| 试论安重根击毙伊藤博文事件在东亚的历史震动作用/277 |
| 伊藤博文是中韩两国的共同敌人/307          |
| 安重根举义及其精神对中国的影响/311         |
| 安重根与民粹派的比较研究/317            |
| 重新认识朴殷植著《安重根》一书的价值/321      |
| 评郑沅著《安重根》一书的结论/333          |
| 关于室田义文所画安重根击毙伊藤博文的现场示意图/349 |
| 关于日人画安重根击毙伊藤博文的宣传画/359      |
| 关于安重根殉国前五分钟的"照片"问题/363      |
| 关于安重根母亲赵氏的"口信"/367          |
| 资料                          |
| 境喜明审问报告中摘录的几段安重根语/371       |
| 安重根义士是神枪手/375               |

# 안중근애국사상의 선명한 특징 및 위인품격

백년전, 안중근이 할빈에서 중, 한 량국을 침략한 일본제국주의 원흉 이등박문(이또 히로부미-이등으로 략하기도 함)을 격살한것은 세계를 진감한 중대한 역사적사건이다.

안중근은 영웅한 애국자이고 동양평화의 수호자이며 세계위인이다. 과거 안중근은 중조 량국인민이 일제를 공동항쟁하는 투쟁의 기발이였고 금후에도 우리가 계속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안중근을 대함에 있어 우린 그의 숭고하고 견결한 애국사상과 고상한 품격을 배워 우리의 후세들이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 1. 안중근의사 애국사상의 선명한 특징

력사는 이미 고금중외의 애국자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으면서 또 각자 개성이 뚜렷하다는것을 증명했다. 공성은 개성속에 존재한다는 철리로 볼 때 우리가 애국영웅인물을 학습함에 있어서 그 개성특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진정한 영웅본색을 배울수 있을것이다. 위인 안중근의 애국사상은 아래 몇가지 선명한 특징이 있다.

1) 안중근의사의 애국사상은 심후하고 확고한 민족감정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 2 안중근연구

부동한 민족은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있다. 광범한 동질감이 형성되면 민족특유의 문화는 민족의식과 민족감정으로 승화된다. 그리고 민족의식과 민족감정은 다시 민족을 뭉치게 하는 힘이 된다. 특히 민족진흥의 관건시기나 민족존망의 위급한 시기에 그것은 비할바없이 강대한 힘이 된다.

수천년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가진 조선민족은 선명한 민족특색과 민족감정을 갖고있다. 일본제국주의세력의 대표자인 이등박문은 미친 듯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의 대권을 빼앗고 재부를 약탈하고 무고한 백성을 도살하고 문화를 말살하였다. 조선민족이 이등박문에 대해 골수에 미치는 원한을 품고 이등박문을 죽이고싶은 민족반항심리가 생기는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민생과 참혹한 국난을 직접 보고 겪은 안중근은 누구보다 그 아픔을 피부로 깊이 느끼고있었다. 그는 필사구국의 결심을 품고 2천만 동포의 강렬한 념원을 모아 구국투쟁의 전방에서 선봉역할을 하였다. 하여 검찰관의 심문에 몇몇이 “난 2천만 동포를 대표하여 결단을 내려 늙은 도적 이등박문을 죽였다”고 말할수 있었다.

2) 안중근은 리지적인 애국영웅이다. 리성인식의 기초에 건립된 그의 사상은 새로운 내용도 있고 완전한 체계도 있다.

### (1) 당시 한국 상황에 대한 인식

일로전쟁이 폭발한후 안중근은 부친의 계몽교육하에 “날마다 신문과 잡지를 읽으면서 각국의 력사를 공부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을 사색했다”. 웰남과 뿔스까의 망국사와 인도의 식민지사에서 약육강식의 시대에 강국이 약국을 침략하는 규률을 깊이 인식했다. “우선은 강제조약을 맺고 다음은 뜻있는자들의 당파를 소멸하고 이어서 강토를 점령한다는것이 바로 현대의 멸국 신법이다.” 일본의 근대사



와 한국을 침략한 상세한 자료에 비추어 안중근은 리씨왕조가 부패무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내정이 혼잡하여 한국의 국력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문치를 치국의 기본으로 삼아” 국방건설을 소홀히 하였기에 “독립, 자위할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등통감(이또 히로부미)이 “5조”와 “7조”를 빌어 한국의 내정, 외교대권을 빼앗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리완용 매국정권을 시촉하여 한국병탄의 보조를 가속화하니 한국은 이미 망국의 전야에 놓이게 되었다.

## (2) 국권관의 새로운 내용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분투하는 중, 안중근의 국권관념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가 쟁취하려는 국권은 리씨왕조의 봉건왕권을 회복하는것이 아니라 민권이였다. 민주주의 자유국가를 건립하여 한국의 국력을 발전시키고 백성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것이다. 안중근은 자서전에서 “사악한 정부를 타도하고 개혁을 실시하여 간신도적배의 무리를 소멸하고 명실상부한 문명독립국가를 건립하며 민권의 자유를 기꺼이 얻게 하겠노라”고 하였다. 사카이 요시아키(境喜明)의 심문을 받을 때 안중근은 “나는 3천리강산과 2천만동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분투하는 사람이지 황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sup>1)</sup> 이렇듯 안중근의 애국사상은 투쟁실천속에서 새로운 진보적핵심이 생성되어있었다.

## (3) 국권회복의 투쟁로선

독립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정확하고 실행성있는 투쟁로선이 있어야 했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외교권을 상실한후 안중근은 교육구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1907년 “7조”의 반포로 내정대권을 잃은 한국은 군대마저 해산당했고 의병운동은 련이어 탄압당하고말았다. 새로운 위기하에 안중근은 국외에 나가 무장항일투쟁을

1) 《한국독립운동사자료7》, 제 443페이지